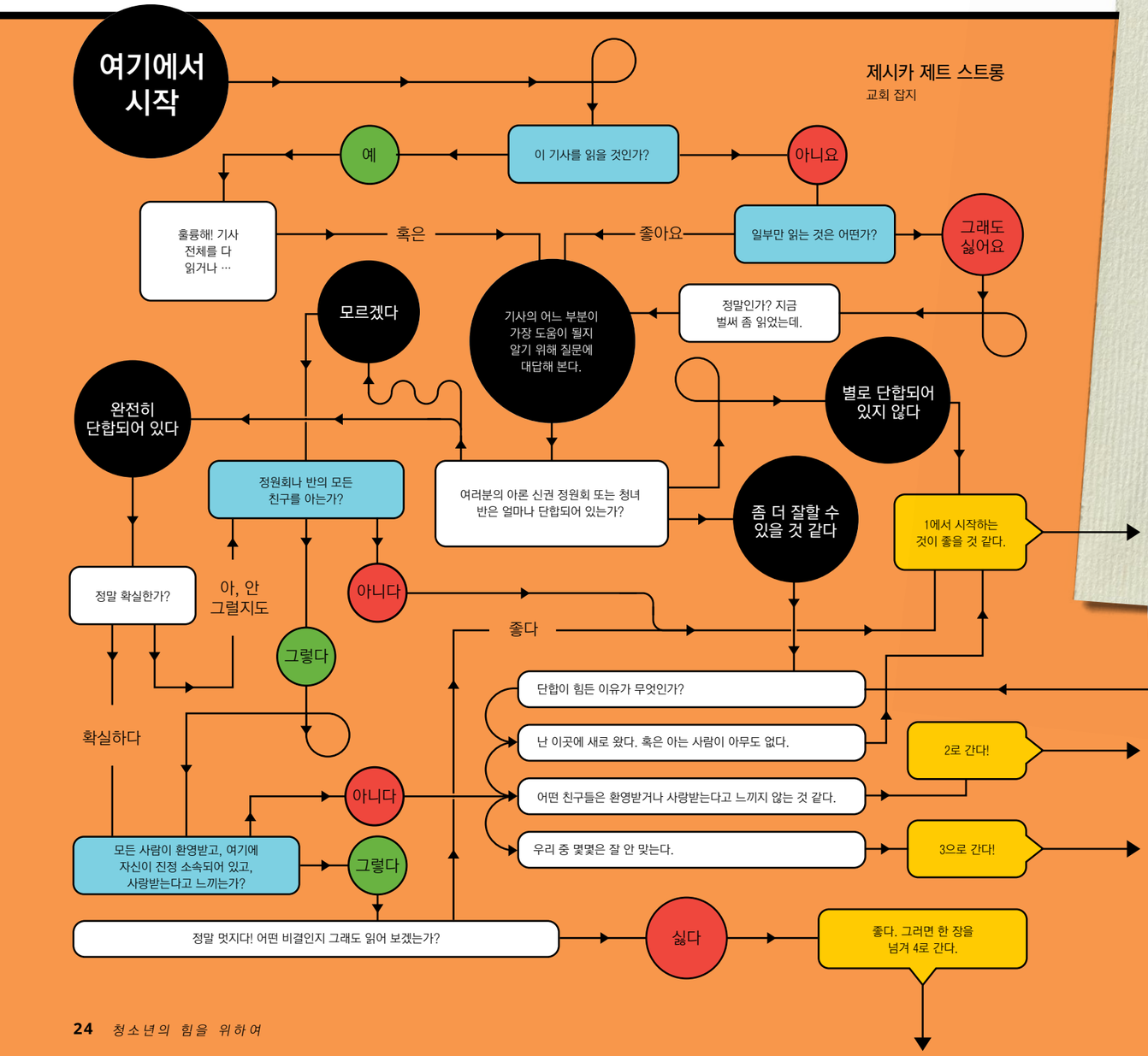
청년 반과 정원회에서
살아남기



1.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데 전문가 되기

여기에 나온 조언을 적용해 여러분의 정원회나 반에 있는 친구들에게 다가간다!

- **용기를 낸다.**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더 잘 알기 위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린다면, 짜증을 낼 것인가?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. 따라서, 용기를 낸다.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거나 문을 두드린다.
- **그들의 이름을 머리에 새긴다.** 다음번에 누군가 자기 이름을 말하면 이름을 기억하려 노력한다. 그 이름과 비슷한 단어가 있는가? 사촌과 이름이 같은가? 이제 그 이름을 절대 잊지 말길!
- **앉을 곳을 지혜롭게 정한다.** 공과 시간이나 활동 시간에 잘 모르는 사람 옆에 앉아 본다. 인사를 건네고 자신을 소개한다. 그러고 나서 그들의 말을 **들어 주고** 그들에 대해 알아본다! 그들은 무얼 좋아하지?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지?
- **친절한 일을 한다! 여러분이라면** 어떤 일에 감사하겠는가? 간식? 미소? 칭찬?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해 준다.

2. 다른 사람이 환영받는다고 느끼도록 돕기

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, 정원회나 반에서 어울리기 힘들어하는 친구를 찾을 수도 있다. 교회나 활동에 자주 오지 않는 친구일 수도 있고, 반에 친한 사람이 별로 없는 친구일 수도 있다. **여러분은**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. 다음과 같이 해 본다.

- 그 친구를 교회 모임과 매주 열리는 활동에 초대한다.
- 주일학교 시간이나 활동 시간에 여러분 옆에 앉으라고 권한다.
- 교회가 아닌 곳에서 마주쳤을 때 인사를 건넨다.
- 그들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도록 노력한다.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곁에 있을 거라는 걸 그 친구가 알도록 한다.

3.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

정원회나 반에서 몇몇 친구와 잘 지내기 힘든가? 원래 그런 거다. 그렇다고 그게 **좋은 거**라는 의미는 아니다.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다. 모두와 절친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. 하지만 여러분은 반 친구들이 친절, 존중, 우정의 지표로서 바라볼 사람이 **될 수** 있다.

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친절하지 않은 경우: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다. "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[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